

효과적인 비장애형제지원의 실행요소 탐색 - 문헌분석과 경험에 따른 심층면담 분석을 중심으로

강 성 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이 병 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장애형제지원 실행요소와 적용방안을 알아보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비장애형제와 관련한 국내 문헌을 분석하였고, 6명의 비장애형제들을 심층면담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장애형제지원을 위한 실행요소로 정보 및 대처기술,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기능성, 사회적 인식, 지역사회 활용자원이 도출되었으며, 각 실행요소들은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른 적용방안으로는 가족의 기능성에 기초한 지원,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반영, 관계-지향적 서비스로서의 지원, 지원활동의 지속성 확보, 사회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원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비장애형제를 양육하는 부모와 형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 및 특수교육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비장애형제, 비장애형제지원, 비장애형제지원프로그램

* 제1저자(rkdtjdf@hanmail.net)

** 교신저자(byoungil@dankook.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 개인의 상황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관계는 발달하는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가정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구조이다(Bronfenbrenner, 1975). 가정은 하나의 조직적인 단위로 존재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갈등하면서 가족구성원간의 연속적인 상호영향을 끼친다(Steinglass, 1984). 또한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한 Bronfenbrenner(1977)는 아동을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를 넘어서는 더 넓은 구조의 이웃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아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근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이 속해 있는 모든 환경과 그 환경 내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었다(김영희, 2005).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일반 부모에 비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Beckman, 1991) 일반 가정과 달리 특별한 요구를 지니기 때문에(Turnbull & Turnbull, 2001), 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효과적인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 폭을 넓혔으며(한경근, 2008),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 또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관련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이것은 특수교육이 장애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최근 장애아동의 가족과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김영희, 2005; 김향지, 강안구, 2005; 백유순, 2008; 이소영, 이소현, 2000; 이소현, 2005; 이한우, 2002; 주혜영, 김현정, 2002, 최민숙, 2004).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 아동을 위한 가족지원의 방향은 주로 장애 유아의 부모,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많고(이병인, 2003) 비장애형제·아버지·조부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이미선, 김경진, 2000).

가족 구성원 중 형제자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장애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갖게 되는 경험 및 학습기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관계는 비장애형제의 특성, 부모, 가족, 지역사회, 문화 안에 포함

된 범주로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받는다(Stoneman, 2005). 형제자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회화의 주관자이며, 이를 통하여 주고받기, 상호협동, 절충하기,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Kresak & Gallagher & Rhodes, 2009).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관계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한 Stoneman(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관계는 가족의 맥락 안에서 발달하게 되며, 특히 그들의 부모가 형제관계의 질적 측면에 어떠한 관심을 갖는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장애 아동의 형제·자매들도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장애 아동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며 삶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가정의 형제·자매 관계와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요구를 지닐 수 있으며(구자현, 한경임, 2008), 이러한 이유로 비장애형제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국내의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행되기 시작했다(구자현, 한경임, 2008; 김수희, 2004; 김영숙, 2001; 신혜정, 1997; 신혜정, 강위영, 2001; 신현옥 외, 2009; 안도연, 김병석, 2005; 양숙미, 2003; 전혜인, 박은혜, 1997; 최성규, 2004; 황보명, 200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비장애 형제들의 생활경험 및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들을 보고하였다(구자현, 한경임, 2008; 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김영숙, 2001; 전혜인, 2008).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비장애 형제들에게 형제의 장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가 주는 낙인 때문에 형제의 장애를 가족의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장애아동의 형제들은 의문과 고민을 가지게 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전혜인, 2008). 또한 장애 형제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장애 형제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Meyer & Vadasy, 1994).

전혜인과 박은혜(1997)는 6-8세에 해당하는 자폐 및 지적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 23명을 선정하여 그 중 11명에게 형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였고, 김은실과 이미경(2006)은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 지원 캠프 참가 경험이 비장애 형제의 자아개념과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권희연 외(2010)는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 형제자매의 대처·적응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비장애 형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들(김수희, 2004; 양숙미, 2003; 임지향, 김선미, 2003)이 발표 되었다.

한편,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비장애형제들도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에 관하여 보고 하였고(Powell & Gallagher, 1993), 이들을 위한 비장애형제지원활동(Sibshop program)들이 다양한 특수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제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지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로 시행

되고 있으며,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도 단회적인 장애형제 캠프가 주를 이루고 있다(신현옥 외, 2009). 이러한 일회적인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의 심리·정서와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장애형제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요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형제의 일반적인 자아의식이나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다(권희연 외, 2010).

형제지원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형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매우 적고 단회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성·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비장애형제지원을 위하여, 비장애형제들의 경험과 심리적·생활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들과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제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장애형제의 경험 및 특성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시 아동연령,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실시기간 등과 같은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을 수혜 받는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신현옥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지원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비장애형제들을 직접 심층면담 한 자료에 근거하여 비장애형제들이 인식한 형제지원 요구에 따른 실행요소를 도출하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비장애형제지원 적용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형제지원 관련 논문의 일반적 특성과 프로그램 목표, 내용, 대상자, 기간 등은 어떠한가?

둘째, 심층면담을 통한 비장애형제지원의 요구를 근거한 형제지원의 실행요소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수록된 비장애형제지원 관련 연구물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하여 비장애형제지원 관련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고, 비장애형제들을 직접 심층면담 한 자료에 근거하여 비장애형제들이 인식한 형제지원 요구에 따른 실행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문헌분석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비장애형제와 관련한 연구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와 국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와 관련한 연구를 선별하였다. 둘째, 비장애형제들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주제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주제 및 내용에 ‘비장애형제’, ‘비장애형제지원’, ‘형제지원프로그램’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셋째, 문헌 수집의 발표연도 선정기준은 비장애형제와 관련한 연구를 고찰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의 문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반적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논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검색 과정으로 ‘비장애형제’, ‘형제지원’을 주제어로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였다. 검색에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는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며, 비장애형제지원 관련 연구가 수록될 수 있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총 73편의 연구가 수집되었다.

3) 분석내용 및 신뢰도

수집된 분석 대상 논문은 발표년도, 주제, 연구 유형,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기준으로 분석대상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입 목표, 주요내용, 대상, 프로그램 실시 기간

등으로 특징지어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한 자료 분석의 신뢰도는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생 1인과 함께 분석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분석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심층면담내용 분석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시한 의도적 표본추출의 동질성(homogeneous)과 연쇄(Chain)전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제 1참여자 선정은 연구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소개를 받아 표집을 확대하는 스노우볼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두 기준에 부합한 경우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손 위, 손 아래 형제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둘째, 참여자 증언의 객관성 및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의 특수교육요구아동의 형제, 자매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6명이었으며, 이들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참여자 코드 \ 내용	성별	나이	장애형제와의 관계	학력	가족 수 (형제 수)	종교
A (참여자1)	여	만 21세	누나	대학(재)	5(2)	천주교
B (참여자2)	남	만 21세	형	고졸	4(1)	기독교
C (참여자3)	여	만 20세	누나	대학(재)	4(1)	무
D (참여자4)	여	만 19세	언니	대학(재)	4(1)	기독교
E (참여자5)	여	만 20세	언니	대학(재)	5(2)	기독교
F (참여자6)	남	만 23세	형	대학(졸)	5(2)	천주교

2) 자료 수집

심층면담의 자료 수집은 특수교육 요구 아동 형제들의 경험 및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의 실행요소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자현 외(2008)와 이은영

(200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들과 이들의 가족의 일련의 생활주기에 따른 반 구조화 된 경험 중심의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반구조화 된 경험 중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로 인해 겪었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2) 형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프로그램 참여 과정과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3) 장애형제의 형제·자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지속하였으며, 면담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이다. 면담 진행 시간은 회기 당 최소 45분에서 최대 1시간 45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의 모든 과정은 녹음하여, 일주일 이내에 특수교육과 대학생 1인과 연구자가 전사하였다. 전사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대학생 1인과 연구자는 각각의 전사본을 녹음된 면담자료와 검토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면담의 전사 자료는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는 분석 작업인 개방부호화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은 자료를 분해해서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하고 자세한 검토를 거쳐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Strauss & corbin, 1990), 자료에 반영된 현상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방부호화의 구체적인 과정은, 연구자가 전사 자료를 읽고 줄 단위로 분석하는 행간분석법(line by line)과 문장 단락 코딩법에 의한 작업을 실시하여 개념을 명명하였고,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거나 축적되면 개념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상위 및 하위범주로 묶어 분류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박사과정생 1인과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심층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고 전사된 모든 내용은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받는 과정(member check)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정 등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시간과 여건을 배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면담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담의 모든 자료는 가명 처리를 하였고, 연구 자료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들을 보관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비장애형제들을 위한 지원 실행요소와 적용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분석대상논문의 문헌분석 결과와 심층면담을 통한 비장애형제 지원 실행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1. 분석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1) 연도별 분석

<표 2> 분석대상논문의 연도별 추이 (단위 : 편(%))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논문수	1	1	1	1	7	4	5	4	9	6	6	8	12	8	73
(%)	(1.36)	(1.36)	(1.36)	(1.36)	(9.58)	(5.47)	(6.84)	(5.47)	(12.32)	(8.21)	(8.21)	(10.95)	(16.43)	(10.95)	(100)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문헌분석대상논문 총 73편에 대한 연도별 분석은 <표 2>와 같다. 비장애형제지원 관련 문헌분석 결과 1990년대에는 3편(4.1%)만이 발표되었으며 70편(95.8%)의 연구가 2000년대에 이루어졌다. 1997년 이후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형제와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관련연구가 더욱 증가하였다.

2) 연구 유형별 분석

<표 3> 연구 유형별 분석 (단위 : 편(%))

연구 유형	실험 연구	조사 연구	단일 대상	상관 연구	비교 연구	사례 연구	문헌 연구	면담 연구	네러티브	혼합 연구	계
논문수 (%)	24 (32.8)	26 (35.6)	6 (8.21)	1 (1.36)	1 (1.36)	3 (4.1)	3 (4.1)	6 (8.21)	1 (1.36)	2 (2.73)	73 (100)

분석대상논문의 연구 유형별 빈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유형별 분석 결과 조사연구가 총 26편(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실험연구가 24편(32.8%)이었다. 이밖에 단일대상연구와 면담연구가 각 6편(8.21%), 사례연구와 문헌연구가 각 3편(4.1%), 상관연구와 비교연구, 네러티브연구가 각 1편(1.36%)로 나타났다. 연구유형을 혼합하여 수행한 연구는 2편(2.73%)이었다.

3) 연구 주제별 분석

<표 4> 연구 주제별 분석 (단위 : 편(%))

연구 주제	비장애형제의 경험 및 특성	비장애형제 지원 프로그램	중재자로서의 형제 훈련	비장애형제지원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계
논문수 (%)	36 (49.32%)	28 (38.36%)	4 (5.47%)	5 (6.85%)	73 (100%)

분석대상논문의 연구 주제별 분석 특성은 <표 4>와 같다. 비장애형제의 경험 및 특성에 관한 연구가 36편(49.32%),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가 28편(38.36%), 장애형제의 중재 시 중재자로서의 비장애형제와 관련한 연구가 4편(5.47%), 비장애형제지원방안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5편(6.85%)으로 나타났다.

4)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분석

연구 주제별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은 총 28편(38.36%)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제지원프로그램을 양숙미(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프로그램 목표, 내용, 개입방법, 대상, 프로그램 기간 등으로 영역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분석

	연구자(연도)	목표	내용	회기
1	홍주연(1997)	장애형제와의 관계변화, 정서적 문제 완화	놀이치료	31
2	이승희(1998)	형제 간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놀이활동, 역할놀이	5
3	임효경(2002)	비장애형제의 적응력 향상	적응력향상 프로그램: 장애이해교육, 집단상담, 부모상담	12
4	전혜진(2003)	비장애형제의 행동 변화	미술치료프로그램	30
5	임지향 외(2003)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 감소	가족미술치료	17
6	윤혜원(2003)	감정표현, 가족관계증진	미술치료	12
7	김수희(2004)	비장애형제의 우울감 해소, 장애형제를 대하는 행동변화	Sibshop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6
8	강민정(2004)	비장애형제의 심리사회적응, 가족응집성	집단놀이치료: 게임 및 조형활동	10
9	최은영 외(2005)	비장애형제의 정서 행동문제 변화	가족미술치료: 개별 및 협동 조형활동	17
10	안도연 외(2005)	비장애형제의 태도변화	구조적 놀이활동 (이야기구성, 게임, 요리)	9
11	김혜정(2005)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과 형제관계	Sibshop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놀이 중심 토론	5
12	변정희(2008)	비장애아동의 정서지능	집단 미술치료	16
13	안상희(2005)	비장애형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 호전	집단미술치료	16
14	이현주(2005)	비장애형제의 우울감 감소	집단미술치료	10
15	조윤주(2005)	비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	미술치료	16

16	김은실 외(2006)	자아개념 향상, 부담감 감소	캠프	1
17	김승미(2006)	비장애형제와 모의 의사소통 향상	놀이중심의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10
18	이정운(2006)	비장애형제의 자기표현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조형활동, 역할놀이, 상황극	23
19	이성하(2006)	형제자매관계향상	형제자매지원 프로그램 (sibshop, Autism family Affair)	7
20	김효성(2007)	비장애형제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감소, 자기효능감 향상	미술치료	16
21	방소영(2008)	비장애형제의 문제행동 감소	놀이프로그램	15
22	백혜주(2008)	장애형제를 대하는 비장애형제의 관계변화	주말공동체 프로그램	8
23	박은정 외(2009)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 감소	부-자녀 의사소통 놀이	12
24	박미주(2009)	비장애형제의 태도변화	상호작용 중심의 미술치료	24
25	김미진(2009)	비장애형제의 자존감 향상	모래상자놀이치료	6
26	권희연 외(2010)	대처·적응력 향상	형제지원 프로그램(Sibshop 수정)	8
27	이미은 외(2010)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 우울감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	연극치료	10
28	임금비(2010)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 대처 향상 및 자기효능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중심의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10

(1)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비장애형제의 심리·정서적 지원, 비장애형제의 대처·적응력 향상, 형제 간 관계변화, 가족 구성원 및 장애형제와의 상호작용 촉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스트레스 관리 중심 프로그램, 장애이해교육,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을 통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과 구조적 놀이활동, 부-자녀 의사소통 놀이 활동 등을 활용한 놀이활동, 단기 캠프활동, 미술치료·연극치료·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2)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 연령

〈표 6〉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 (단위 : 편(%))

4-7세 (유아)	8-13세 (초등학생)	14-19세 (중·고등학생)	혼합연령	계
7 (23.3%)	15 (50%)	3 (10%)	5 (16.7%)	30 (100%)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분석결과 참여하는 대상은 형제집단참여와 장애아동과 그의 비장애형제 참여, 장애아동과 그의 가족 참여의 형태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은 <표 6>과 같다.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8-13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편으로 전체 연구의 50%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은 4-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23.3%), 14-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10%)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혼합하거나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혼합연령으로 구성한 연구가 5편(16.7%)으로 나타났다.

(3)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 인원

〈표 7〉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참여 인원 (단위 : 편(%))

10명 이하	11-20명	21 이상	계
18 (60%)	9 (30%)	3 (10%)	30 (100%)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는 <표 7>과 같이 1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8(60%)편, 1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30%)편, 21명 이상으로 한 연구가 3(10%)편으로 나타났다.

(4)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기간

<표 8>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기간 (단위 : 편(%))

10회기 이하	11-20회기	21-30회기	30회기 이상	계
16 (53.3%)	10 (33.3%)	3 (10%)	1 (3.3%)	30 (100%)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 대부분 주 1회 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기간은 <표 8>과 같다. 형제지원 프로그램 분석 결과 10회기 이하의 프로그램이 총 13편의 연구에서 진행되었고, 11-20회기가 11편, 21-30회기가 3편, 30회기 이상이 1편으로 나타났으며, 3편의 연구에서 단기(2일)의 캠프 형태로 형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심층면담에 따른 비장애형제 지원의 실행요소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층 면담을 통하여 정보 및 대처기술, 심리·정서, 사회적 인식, 가족기능성, 지역사회자원의 5가지 실행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각 요소들은 영역과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표 9> 비장애형제지원 실행요소 영역 및 세부내용

실행 요소	영역	내용
정보 및 대처 기술	장애형제에 대한 정보	장애형제의 장애에 대한 정보
	장애형제와 부모에 대한 대처 기술	장애형제의 행동 대처방법 장애 형제와의 소통 부모와의 갈등해결 기술
심리·정서	정서문제	장애동생에 대한 감정 장애형제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 부모의 기대투영 의존성(수동성)
	정서표현	감정표현 억제 문제상황 회피 부적절한 스트레스 표출
	성숙과 변화	개인의 가치관 독립성

<표 9> 비장애형제지원 실행요소 영역 및 세부내용 (계속)

실행 요소	영역	내용
가족기능성	가족위기관리	가족 결속력 가족 내 희생 및 배려 가족 내 의견교류
	가족의 수용성	장애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부와 장애형제 간 유대감 장애동생을 대하는 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정변화에 따른 태도 애착형성 모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
사회적 인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타인의 시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지역사회 자원	지지(옹호)집단을 통한 지원	또래지지 부모지지를 위한 교육 교사지원 상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성 홍보 참여구성원
	단기 보육 위탁 서비스	가족 개인의 시간 확보 장애아동 돌봄 관련 지원의 필요성

1) 정보 및 대처기술

정보 및 대처기술 요소는 크게 장애형제에 대한 정보와 장애형제와 부모에 대한 대처기술의 두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비장애형제들은 장애형제에 대한 정보나 적절한 대처기술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알게 된 정보 중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1) 정보제공

비장애 형제들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형제의 장애원인과 행동 특성, 타인에게 형제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습득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장애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자신의 형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장애형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러한.. 그 장애를 가진 분들 가족들도 장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동생이 지능이 좀 떨어지고 발달이 좀 느린 것으로만 알았는데, 대학 와서 전공을 하다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도 사실은 잘 모르시고 어머니는 아시는데 아버님은 잘 모르시고,, 동생도 이제 누나가 아프다는 것만 알지, 왜 아프고 이런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으로 초청을 해서 장애 그룹이 굉장히 다양한데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대일 카운슬러라든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실 대처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주면,, 저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D.1.297-302)

또한 비장애형제들이 삶의 장면에서 만나는 타인들의 물음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위축되거나 가족 및 자기인식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비장애형제들은 정보제공과 관련한 지원의 요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도 못 데리고 가겠고, 놀이터 데리고 갔을 때 "애는 왜 말 못해요?", "애 몇 살이예요?" 이랬을 때 저는 "그냥 응, 형은 7살이야," "어, 7살인데 왜 말 못해요?" 이러면 "응, 그건 너도 달리기 잘 못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식으로 말해주긴 하지만 속상하거든요,, (E.1.909-913)

(2) 대처기술

비장애형제들은 장애형제를 돌보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기술을 경험적 체득과정을 통하여 습득하였고, 이 과정 중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보고되었다.

밥 먹이는 것부터, 씻기는 것까지 다 했는데, 제가 여동생이다 보니까 씻기는 문제가 가장 큰데,, 동생이 생리하거나 이렇다 보면,, 동생도 민감하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다 해줬는데,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꺾어보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D.1.328-332)

특히 이러한 대처기술은 대부분 가정생활 중에 매우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요구되는데, 대처방법에 대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가정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에 장애형제의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장애형제와 소통을 위한 기술, 장애형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와 비장애형제간의 갈등해결 기술이 형제지원의 실행요소로 도출되었다.

2) 심리·정서

비장애 형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요소로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정서문제, 정서표현, 성숙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1) 정서문제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동생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애 동생에 대한 감정은 분노와 동정이라는 양가적인 특성을 보이며, 상호 존재하는 두 감정은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각되거나 축소되었다.

또 보면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처음에는 싫었어요,, (A,2,510)

○○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고,, ○○가 가진 이 매력을 통해서 사람을 사귄 수 있는 관계가 적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아쉽고,,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가 따돌림 당하고 외로울 것이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 슬펐어요,, 아,,너무 슬프다,,왜 이렇게 태어났지,,○○가 이렇게 예쁜데,, 사람들은 몰라줄 것이라는게,, ○○가 외롭고, 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E,1,512-517)

비장애형제들은 장애형제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미래의 자기역할 등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심리반응도 기대투영에 대한 부담과 높은 의존성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보호시설에 맡기라고 하는데, 가족이 잘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시설이니까, 물론 가족이 잘 못하면 시설에 맡기는 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있으니까,, (D,1,93-94)

저는 제가 생각한 게, 결혼은 해도 같이 살,,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고민이 더라고요,, 이제 나도 점점 나이를 먹어 가는데,, (A,2,714-716)

(2) 정서표현

비장애 형제들은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거나 문제 상황 회피하기, 부적절한 스트레스의 표출 등의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독서실에서 친구를 만나서 울면서 얘기하고, 집에서는 다 잘 되가는 척 했거든요 (E.3.16-18)

엄마한테 한 번도 나 이래서 진짜 힘들었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A.1.362-366)

그런 거 뭐 엄마, 아바랑 이야기 해본 적은 없어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번히 속상하실 것 아는데,, 또 말 꺼내기가 어렵고... (A.2.718-21)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들이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게 하는 심리·정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하도록 돕는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성숙

비장애 형제들은 연령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고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성숙으로 인한 심리·정서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것은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 활동 구성 시 그들의 연령, 개인차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커가면서 느낀 것이지만, ○○를 통해서 좀 변화를 받은 점이, 부족한 것,, 소박한 것에 감사하게 되고, 건강하다는 게 뭔지 알고, 평범하다는 게 뭔지 아는 것(E.1.360-363)

한편, 비장애형제들은 연령변화에 따라 내면의 가치관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숙의 요인이 또 다른 비장애형제들에게 조언자·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기능성

가족기능성과 관련한 비장애형제 지원 실행요소는 가족의 위기관리, 장애형제에 대한 수용성, 부모의 양육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기능성에 대한 실행요소는 형제지원을 위하여 가족의 역량강화와 가족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1) 가족의 위기관리

가족의 위기관리는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유지·존속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가족 결속력, 가족 내 희생 및 배려, 가족 내 의견교류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결속력과 의견교류의 융통성 등이 장애 아동을 둘러싼 가정과 비장애형제의 긴장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요인이었다.

접하게 되는 가정의 문제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그 일들이 힘들고, 시련 이고, 고난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결속력을 막 강하게 한다거나,, (E.4,558-559)

근데 저희는 그게,, 다른 거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다,, 토론,, ○○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진학하냐,, 이런 것도 다 저 가족끼리 다 상의해서,, 상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A,1, 214-217)

(2) 장애형제에 대한 수용성

장애형제에 대한 수용성은 장애의 개념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장애형제와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 가족들이 장애동생을 대하는 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장애형제의 존재를 수용하는지의 여부는 가족구성원의 종교 및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옆에서 엄마랑 이모 대화 들으면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마인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한테 주시면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음,, 그렇구나,' , 거기부터 출발하니까,, 이렇게 ○○가 우리 가족이고, 뭔가 부족한 거라는 걸 인정하고서 (E.4,47-51)

○○이의 존재가 고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가족이 된 거니까,, (B,1,223)

이는 장애자녀 혹은 장애형제의 존재에 대한 수용은 가족구성원 개인의 내재적 가치관에 기인하며, 또한 이러한 가치는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가족 분위기와 기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기능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모 개인의 감정변화에 따른 태도변화, 부모와 비장애형제 간 애착형성, 비장애형제에 대한 모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에 관한 것이다.

막내 동생을 보니까 생각이 되는 게 조금 신경을 분산시켜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

기도 해요, 이것은 조금 사랑의 문제인 것 같은데, 부모님이 특히 어릴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그것을 받지 못하면 계속 남아있는데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D,1,361-365)

결국 애착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그 체계관이 존중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은 그때 성장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미 시기를 놓쳤고.. (C,2,604-606)

비장애형제들은 부모와의 관계성이 자신들의 삶과 인격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유아·아동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아동의 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비장애형제를 대하는 양육태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사회적 인식

(1) 장애에 대한 인식

비장애형제지원의 실행요소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회적 인식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명절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 동생 방에 가두는 것, 사람이 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럼 맨날 가둬야 해요, 일부러 재우고, 눕혀놓고 왜냐하면, 애가 하지 말라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사 지낼 때도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밥 먹일 때도 저희가 먹여요, 근데 사촌 꼬맹이들이 제 동생 먹이는 것을 볼 때, 제 동생이 딱딱한 것을 못 먹으니까, 그냥 씹을 수 있는 것을 주기도 하고, 애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C,1,200-208)

비장애형제들은 그들 개인의 경험에 따라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타자화하는 이들을 ‘타인’이라 명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들은 일부 친척을 포함한 이웃 및 주변인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장애’에 대한 타인들의 인식에 대한 대선이 특수교육대상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길 가다가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식이 바뀌면 게임 끝난 거죠, (D,1,311-315)

5) 지역사회자원

지역사회자원은 또래지지, 부모지원을 위한 교육, 교사지원, 상담지원 등의 지지(옹호)집단을 통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지속성, 홍보, 참여구성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전달체계, 가족의 개인시간 확보, 장애아동 돌봄 관련 지원의 필요성의 내용에 대한 단기보육위탁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각 영역들은 특수교육요구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지원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1) 지지(옹호)집단을 통한 지원

지지(옹호)집단을 통한 지원은 비장애형제를 둘러싼 인적·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의 지지, 또래지지, 교사의 지원, 상담지원의 세부 영역으로 나타났다.

6학년 때 좀 심하게 놀림을 받아서,, 엄마한테 학교 다니기 싫다고,, (A,1,293-294)

특히 이들은 학창시절동안 그들의 또래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놀림을 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또래 집단의 지지는 비장애형제들의 사회적 맥락에서의 주요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지지집단의 지원은 또래에서 더 나아가 교사 및 학교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이 3학년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수업도중에 실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찾아오셔서가지고,, 내려오라고,, 치우라고,, (A,1,278-279)

비장애형제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집단은 가족이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에 의한 영향력을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가장 기초적 지지집단은 그들의 부모이며 비장애 형제들은 적절한 부모교육을 통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부모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장애아이의 부모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E,2,91-97)

비장애형제들은 가족의 문화 및 분위기에 의해 부모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개인 성격적 측면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여 교사나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하여 가족 및 또래집단 이외의 조력자 및 상담가와 같은 새로운 지지집단을 구성할 필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준 경우라서 ... 그 때 당시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지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저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성장을 했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방법도 몰랐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혼자 삭히고 지냈는데... 어... 좀 그랬죠, 힘들었죠, (D.2.233-240)

(2) 서비스전달체계

비장애형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활용자원 중 하나로 도출된 서비스 전달체계는 비장애형제들이 실제 형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이 나타났다.

근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저도.. 저랑 또래인 애들도 있었고, 약간 큰 고등학교 오빠도 있었고, 거기 끼기 어려운 게 있어서..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같이 컸다면, 같이 자라났다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참여도, 뭐 한 두 번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약간 그.. 거리감이 있어서.. (E.2.161-168)

만약에 우리도 ○○구청에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음.. 그렇게 홍보해 주는 거 모르니까.. 일단 모르는 게 먼저구요,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뿐이니까, 문제점을 의식하는 것부터가 막 힘드니까.. 학교에 통해서 접근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와 닿아.. 오는 경우인 거 같아요, (E. 2.430-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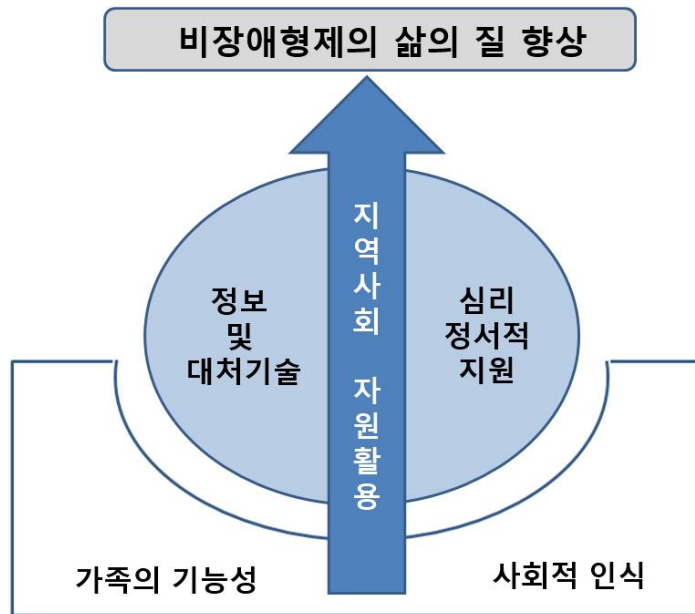
특히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내용이 이들의 실제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형제지원 프로그램 실행 시 적합한 지원실행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단기보육위탁서비스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개인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간별 보육위탁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가시고, 또 어머니도 나가고 저랑 동규도 나가게 되면,, ○○가 정말 없는 거 예요, 근데 그게 뭐 남한테 돈을 줘서 그 시간에 돌보아 달라 할 만한 차원이 아니고, ○○가 학교 말고도 가족이 다른,,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저녁시간이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그 시간에 이제 ○○가 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E,791-758)

비장애형제들을 심층면담하여 도출된 비장애형제지원을 위한 실행요소(정보 및 대처기술,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의 기능성, 사회적 인식, 지역사회 자원활용)는 각 요소들 간 영향을 끼치며, 각 요소들은 인과적이고 복합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장애형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은 가족 기능성의 향상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정보 및 대처기술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비장애형제지원을 위한 실행요소 간 유기적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1> 특수교육요구아동 비장애형제지원의 실행요소 간 유기적 관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장애 형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요소와 적용방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문헌 분석을 통하여 형제지원 관련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고, 비장애형제들의 면담을 통하여 비장애형제지원 실행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문헌분석 결과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2000년 이후 급증하였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가족과는 차별되어지는 특별한 요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이병인, 조현근, 2009)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들(김영희, 2005; 김향지, 강안구, 2005; 백유순, 2008; 이소영, 이소현, 2005; 이한우, 2002; 이소현, 2000; 주혜영, 김현정, 2002, 최민숙, 2004)이 2000년 이후 급증하였고, 장애 당사자에서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확장적 개념이 중요시 되는 시대적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초기에는 형제자매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구자현, 한경임, 2008; 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김민정, 2009; 김영숙, 2001; 전해인, 2008)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적응대처기술과 관련한 실험연구(김수희, 2004; 신혜정, 1997; 양숙미, 2003; 이미경, 2006; 임지향, 김선미, 2003; 전해인, 박은혜, 1998; 최성규, 2004)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비장애형제지원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적응대처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심층면담을 통한 결과에서도 주요 지원요소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중 심리적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가장 많다는 신현옥 외(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양숙미(2003)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과 대처기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문헌분석을 통한 형제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세부 내용은 스트레스관리, 적응력, 놀이중심, 형제캠프, 심리치료 등으로 나타났으나, 심층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실행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 의거하면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은 가족기능성과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두 기반에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구성 시 부모지지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수희(2004), 김은실, 이미경(2006), 신현옥 외(2009), 임지향, 김선미(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의 하위체계 중 어느 하나에 영향을 준 사건은 필연적으로 가족을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며(Turnbull & Turnbull, 2001), 또한 가족은 사회체제 안에 독립적이거나 고립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회체제와 상호 교류·연결되어 있으므로(이한우, 2002) 비장애형제지원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가족 내·외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이병인, 조현근, 2010).

넷째, 형제지원 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7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아동의 비장애형제들이 내면의 갈등과 자아정체성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양숙미(2003), 신현옥 외(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비장애형제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제지원 프로그램은 문헌분석을 통해 단기·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심층면담을 통한 비장애형제지원 실행요소로서 비장애형제 지원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용숙, 윤치연, 김영희(2009)와 이병인, 조현근(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비장애형제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가정, 학교, 복지관 등 각 전문 영역별 파트너십(partnership)의 확립과 연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형제지원은 가족의 기능성 회복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비장애형제에게 가시화 된 지원요구는 정보 및 대처기술과 심리·정서적 지원이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적 접근은 근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족의 기능성에 대한 것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의 기능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 갈등, 부모의 양육 방식 등을 포함한다. 특히 가족기능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가족이 가진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며, 가족 스스로가 내재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비장애형제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장애형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각 지역사회의 형제지원 서비스 제공자들은 형제지원이 비장애형제들과 장애아동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 활동에 형제자매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 형제자매의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예측하여 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 모델이 구축해야 한다(Kresak & Gallagher &

Rhodes, 2009).

셋째, 비장애형제지원은 이들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장애형제지원의 서비스가 '수혜자 중심'의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장애형제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과 발달 시기에 당면하는 문제와 지원요구들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넷째, 비장애형제지원은 '관계-지향적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장애형제를 둘러싼 인적관계, 즉 부모, 또래, 학교 상담가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비장애형제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활동은 일회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적인 프로그램은 비장애형제의 일시적 행동 수준의 표면적인 변화는 이끌 수 있으나, 내면의 정서나 인간 이해와 같은 내적 측면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은 지속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장애형제지원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장애아동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구성원에게도 함께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시각을 배제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국외 문헌은 대부분이 현장 프로그램 중심의 문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헌분석 대상으로서는 제외되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비장애형제지원과 관련한 국외 문헌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형제지원의 실행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현장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위영, 신혜정 (2001). 자폐아동의 형제관계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7(1), 381-412.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구자현, 한경임 (2008). 장애 아동 비장애 형제 생활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아 연구**, 51(3), 199-218.
- 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부양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63-89.
- 김수희 (2004).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우울감과 장애형제를 대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6(1), 21-36.
- 김영숙 (2001).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장애아와 비장애형제자매관계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찰. **지적장애연구**, 3, 145-159.
- 김영희 (2005). 유아특수교육에 있어 포괄적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천방향. **유아특수교육연구**, 5(2), 26-47.
- 김은실, 이미경 (2006). 장애아동 형제지원 캠프 참가경험이 비장애 형제의 자아개념 및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7, 89-108.
- 김향지, 강안구 (2005). 장애아동 부모지원을 위한 내용 구성방안. **정서행동장애연구**, 21(2), 301-309.
- 권희연, 전병운, 이진아, 김형준, 정환별, 양승창 (2010).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이 형제자매의 대처·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147-171.
- 백유순 (2008).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서의 가족중심 실재를 위한 실천과제. **유아특수교육연구**, 8(3), 89-111.
- 신현옥, 주혜영, 이병인, 유지성 (2009). 장애유아 형제지원프로그램 실시현황 및 가족의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1(3), 179-201.
- 신혜정 (1997). 자폐 유아의 주시행동 향상을 위한 형제자매 중재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3(1), 137-154.
- 안도연, 김병석 (2005). 구조적 놀이가 장애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12(2), 111-131.
- 어용숙, 윤치연, 김영희 (2009).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지원 요구도 및 사회적지지. **정서·행동장애연구**, 25(2), 197-214.
- 양숙미 (2003).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고찰. **한국가족복지학회**, 8(1), 69-84.
- 이미선, 김경진 (2000).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방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이병인 (2003). 발달지체 영·유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 개발 및 시행을 위한 방법론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91-120.
- 이병인, 조현근 (2010). 발달지체 영유아 가족의 요구에 따른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 구성

- 및 활용방안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215-249.
- 이소영, 이소현 (2009). 발달지체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가정-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 1999년~2008년 국외논문을 중심으로 -. **유아특수교육연구**, 9(4), 101-120.
- 이소현 (2000).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가족참여를 위한 중재방안 고찰. **언어청각장애연구**, 5(1), 174-191.
- 이제화, 이상복 (2007).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분석: 1997년~2007년까지 국내외 연구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29-52.
- 이한우 (2002).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사회관계망 특성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3), 57-74.
- 임지향, 김선미 (2003). 가족미술치료가 정신지체학생 어머니와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2), 273-296.
- 전혜인 (2008).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159-179.
- 전혜인, 박은혜 (1997).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형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27, 129-144.
- 주혜영, 김현정 (2002).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에 관한 방향 모색. **유아특수교육연구**, 2(1), 135-158.
- 채유경 (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갈등, 영적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17(2), 189-209.
- 최민숙 (2004). 장애유아의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실행모델.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59-173.
- 최성규 (2004). 형제자매의 유무에 기초한 정신지체학생과 자폐학생의 사회성과 언어발달의 상관관계. **언어치료연구**, 13(3), 75-92.
- 한경근 (2008). 중도·중복장애의 개념,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동향 분석. **중도지체부자유연구**, 52(1), 287-316.
- 항보명 (2003). 형제 참여 언어중재가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음성과학**, 10(3), 65-77.
- Beckman, P. J. (1991).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effect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5, 585-595.
- Bronfenbrenner, U. (1975). Is early intervention effective? In J. Hellnuth(ED.), *Exceptional Infants*, 3. New York: Brunner/Mazel.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Dunst, C. J., Trivette, C. M., & Hamby, D. W. (1994). *Measuring social support i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 Dunst, C. Trivette, & A. Deal(Eds.),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Inc.
- Kresak, K., Gallagher, P., & Rhodes, C. (2009). Siblings of infant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in early interven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9(3), 143-154.

- Meyer, D. J., & Vadasy, P. F. (1994). *Sibshop: Workshop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Mile,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Powell, T. H., & Gallagher, P. A. (1993). *Brothers and Sisters: A Special Part of Exceptional families*(2nd ed.). Baltimore:Paul H. Brookes.
- Steinglass, P. (1984).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A clinical application of general systems theory. *Psychiatric Annals*, 14(8), 582-586.
- Stoneman, Z. (2001). Supporting positive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childhood,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7, 134-142.
- Stoneman, Z. (2005).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earch themes, *Mental retardation*, 43(5), 339-350.
- Turnbull., & Turnbull. (2001). *Families, professional, and exceptionality: Colaborating for empowerment* (4rd, ed). Saddle River, NJ: Merll/Prentice Hall.

분석문헌

- 강민정 (2004). 장애아의 형제를 위한 집단놀이치료가 심리사회적 적응과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강혜란 (2009). 장애아 가족의 특성과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구자현, 한경임 (2008). 장애아동 비장애 형제 생활경험의 근거이론적분석. **중복·지체부자유 아교육**, 51(3), 199-218.
- 금미주 (2001). 비장애 형제의 환경중심 언어 중재 전략이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귀자 (2002). 자폐성 장애아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미진 (2009). 모래상자놀이치료가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미혜, 오수경, 장숙 (2008). 성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양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63-89.
- 김민정 (2010). 장애 형제가 있는 비장애 형제가 경험하는 적응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선혜 (2010). 장애아동과 비장애형제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희 (2004). 장애 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비장애 형제의 우울감과 장애 형제를 대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6(1), 21-36.

- 김세라 (2008). 비장애형제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승미 (2006). 놀이중심의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가정 비장애형제의 모-자 의사소통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영숙 (2001).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장애아와 비장애형제자매관계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찰. **지적장애연구**, 3, 145-159.
- 김은실, 이미경 (2006). 장애아동 형제지원 캠프 참가경험이 비장애 형제의 자아개념 및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3, 145-159.
- 김은희 (2010).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인학 (2001). 사진교환 의사소통 체계(PECS)를 이용한 중재가 중도 자폐아동과 비장애 형제 간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 (2005). 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과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화림 (2006). 동일학교 재학여부, 출생서열, 성별에 따른 정신지체형제를 가진 비장애 형제의 스트레스.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효성 (2007).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우울감,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효숙 (2003). 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희연, 전병운, 이진아, 김형분, 정환별, 양승창 (2010). 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 형제 자매의 대처·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147-171.
- 박규향 (2001). 자폐성장장애 형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미숙 (2005). 장애아동 가족의 탄력성과 비장애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미주 (2009). 상호작용 중심의 미술치료가 장애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박은정, 윤창영 (2009). 부-자녀 의사소통 놀이가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놀이 치료연구**, 13(3), 47-64.
- 박하얀 (2007). 장애 형제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감 및 그 관련 변인.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방미경 (2008). 장애아 어머니 양육행동이 비장애 형제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방소영 (2008).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장애·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혜주 (2008). 주말공동체 형제지원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형제의 형제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변정희 (2008). 집단미술치료가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서진실, 박혜준 (2009).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93-115.
- 송현정, 김광웅 (2001).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 205-223.
- 신현옥, 주혜영, 이병인, 유지성 (2009). 장애유아 형제지원프로그램 실시현황 및 가족의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1(3), 179-201.
- 신혜용 (2002). 발달장애인 형제를 가진 비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형제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혜정 (1997). 자폐 유아의 주시행동 향상을 위한 형제자매 중재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3(1), 137-154.
- 신혜정, 강위영 (2001). 자폐성 아동의 형제관계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7(1), 381-412.
- 신혜정, 이한우 (2002). 자폐성 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자아개념 연구. **한국초등특수교육연구**, 4(1), 203-227.
- 안경미 (2005).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비장애형제들이 겪는 정서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안도연, 김병석 (2005). 구조적 놀이가 장애 형제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12(2), 111-131.
- 안상희 (2005). 장애 형제를 가진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양숙미 (2003). 장애 형제가 있는 비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고찰. **한국가족복지학회**, 8(1), 69-84.
- 오정희, 박중규 (2007). 장애형제관련 스트레스 요인 및 비장애 형제의 자아개념수준, 부모 양육태도가 형제관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과학연구**, 25(2), 35-52.
- 유순향 (2007). 청각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관한 연구 - 청소년기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유혜경 (2009).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윤혜원 (2003). 발달장애아를 둔 초등학교 형제자매의 미술치료 활동에 관한 경험-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이미숙, 권희연 (2009).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긍정적 적응 및 발달을 위한 방안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5(1), 141-163.
- 이미은, 박희선 (2010). 연극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 149-169.
- 이민호, 최기창, 이원령, 김미경, 최신애 (2004).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서 문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1), 137-158.
- 이성하 (2006). 형제자매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의 형제자매 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순미 (2009).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이승희 (1998). 비장애형제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전략 중재가 형제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연주 (2007). 장애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아개념 비교.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이은영 (2003). 자폐아동 학령기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영 (2008). 형제간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적 태도가 일반 통합환경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 이자영 (2000). 가정환경이 정신지체 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비장애형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운 (2006). 통합예술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형제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이지연 (1996).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연 (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현주 (2005). 집단미술치료가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의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임금비 (2010). 스트레스 관리 중심의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이 중도·중복 장애학생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중호 (1999). 비장애인 형제의 뇌성마비 형제에 대한 태도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4(1), 133-150.
- 임지향, 김선미 (2003). 가족미술치료가 정신지체 학생 어머니와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2), 273-296.
- 임지희 (2010). 장애아동 형제와 비장애아동 형제의 형제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 비교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임효경 (2002). 장애아동 가정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전혜인 (2009). 장애자녀의 어머니가 비장애자녀를 키우는 이야기, **정서·행동장애연구**, 25(4), 333-359.
- 전혜인, 박은혜 (1998).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형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27, 129-144.
- 전혜진 (2003). 장애아 가정의 비 장애 형제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조운주 (2005). 미술치료가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진명성 (2001). 장애아 가정환경이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성규 (2004). 형제자매의 유무에 기초한 정인지체학생과 자폐학생의 사회성과 언어발달의 상관관계. **언어치료연구**, 13(3), 75-92.
- 최윤진 (2009). 형제자매가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교수가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의 물건사기 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 최은영, 박제현 (2005). 가족미술치료가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학습장애아동 및 일반 형제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1(3), 341-362.
- 홍주연 (1997). 장애아 형제로 인해 상처받은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1, 87-100.

Consideration on Effectiveness of Implementing
Component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In Accordance wit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interview

Kang, Seong Ri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Lee, Byoung In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components and application method for effective support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tal 73 articles related to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Focusing o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i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five implementation components for support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formation and coping skill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amily functioning, social perception, resources on community-use. It is followed the conclusion based the result which six applications for supports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supports based on family functioning, (2)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3) reflection of siblings' needs and characteristics, (4) supports based on relationship orientation, (5) sustainable support, (6) improvement of social perception. The results 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eachers and professionals who want to implement the sibling program in special education settings.

Key Words

: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ibling support, Sibling program

논문 접수: 2011. 10. 31 심사 시작: 2011. 11. 10 게재 확정: 2011. 12. 26